

제 4 장 문화공보

제 1 절 문화예술 행정

제 2 절 관광문화재 행정

제 3 절 공보행정

제1절 문화예술 행정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금정문화회관·금정체육공원·금정구민체육관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관련 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 순수예술분야 금정예술제에서 제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산업(관광)연계형 축제로의 과감한 변화와 성공을 거두었고, 축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개발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부산대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연지원센터 개소, 상설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청소년·청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

■ 제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개최

금정구는 역사와 예술의 고장으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구민에게 문화향유를 통한 창조성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금정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2011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새로운 축제의 서막을 여는 『제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를 2011. 5. 27. ~ 5. 29. 3일간 스포원(금정체육공원), 부산대, 금정산성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최장 금정산성(18,845m, 사적215호)과 민속주 1호인 금정산 막걸리를 테마로 예술적 감성과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통해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상품인 금정산성 막걸리의 명품화 및 문화적 콘텐츠 개발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구민 자긍심을 도모하였다.

기존 순수예술제에서 지역산업 연계형 축제로의 과감한 변화로 단순 지역단위 화합행사가 아닌 전국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막걸리 런닝맨, 막걸리 소재 다양한 구민 참여 게임으로 구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웰컴투 금정산성 문화탐방, 금정산성 18,845명소탐방 미션 등 금정산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참여객의 호응을 얻고 사적 215호 국내최장 금정산성을 관광자원화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막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 16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부산대 거리 공연에는 2,0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여 침체된 부산대학교 주변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정별 다양한 공연·전시와 교육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금정산성을 주제로 한 행사장의 넓은 공간을 활용한 참여·체험·판매 등 프로그램 다양화로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2년도에는 축제를 통한 지역개발 브랜드화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개발형 축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 진입을 위해, 금정산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수준 높은 축제 운영을 통해 한발 나아갈 예정이다.

< 제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행사내용 >

구 분	행 사 명		장 소	참여인원
개막 행사	막걸리 런닝맨, 식전공연, 개막식(향토봉사상 시상), 축하공연, 불꽃쇼		스포원파크 부산대 일원, 금정산 성 일원	159,550명
공연 행사	5.27.(금)	식전공연(풍물패, 모듬북, 금정여성합창단, 가야금합주+B-BOY), 개막축하공연(오프닝 퍼포먼스, 크로스오버콘서트, 초청가수 공연)		
	5.28.(토)	민속 널뛰기 공연, 오카리나 공연, 춤·소리·그리고 신명(무용협회), 밴드공연, 막걸리 칵테일쇼 부산대 Street Party Vol2, 창작마당극 “샘봤다” 생명춤 페스티벌-거리에서 놀자, 산상음악회		
	5.29.(일)	시민노래자랑, 국악을 국민속으로(국립부산국악원) 산상음악회, 폐막공연		
전시 행사	막걸리 홍보관, 깃발시화전, 현수막전, 특별한 막걸리 칵테일과 파티상차림, 사진전			
체험참여 행사	웰컴투 금정산성!체험프로그램, 국제문화예술제, 금정산성 18,845명소탐방 미션, 막걸리 18,845잔 이어 마시기, 수문당과 사진찍기, 저잣거리·민속놀이 체험, 막걸리 제조체험, 웰빙건강체험존, 작가와의 만남,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소방체험, 어르신 장기대회, 금정산성 성곽쌓기, 사대문 목판체험, 마술체험, 부채만들기, 소원지 쓰기, 막걸리 학력고사, 미래로 보내는 엽서, 신안소금장터, 아트프리마켓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금정문화원

우리지역 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을 위해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사업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민 평화안녕기원 고당봉해맞이 행사, 청소년을 위한 시와 춤과 소리의 만남, 진도북춤 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화합과 전통문화의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에서 벗어나 부산대 거리공연, 금정산성 체험 문화탐방, 산성 막걸리 축제 문화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년층과 소외된 계층 등 남녀노소 전 주민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 지역 문화원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탐방과 청소년과 지역 예술단체를 연계한 청소년 상상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협회 8개 분과 39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주관 또는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각 분과 협회별 기획행사 등 우리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더욱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현황 〉

계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국악협회
395	71	90	35	27	18	35	50	69

■ 구민홀 상설전시장 운영

'94년 지역 예술인의 창작성 발표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홀 2층에 설치된 상설전시장은 구민 소장 작품 전시, 지역 예술인의 개인전, 아마추어 동호인전, 공모전등 지속적인 전시 유치로 예술인들의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96년부터 139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예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작품전시회 개최는 구민의 예술적 감성개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금정문화회관 운영

금정구민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금정구 체육공원로 7번지(구서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6,453㎡ 규모로 2000년 준공 개관하여 생활문화공간, 공연공간,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등을 갖추고 부산의 동·북부권 주민들의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최고의 현대화된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금정·기장·양산 지역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요람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부산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부산대일원은 90년대 최고의 젊음의 거리였으나, 날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대학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 홍대거리, 우수문화시설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 2011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인 ‘회춘프로젝트’는 100여일 동안 온천천 문화살롱, 스트리트 아트, 사운드 퍼니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부산대 및 온천천 일대를 기점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청년문화 예술단체를 발굴·결속케 하여 장전커넥션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 생활속 문화시장 공모사업에 프리마켓 아마존이 선정되어 국비 22백만원을 확보하여 매주 토·일요일 온천천변을 문화장터로 바꾸어 놓았다.

2012년에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과 예술공연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부산대 일원이 명실상부 청년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술공연지원센터 조성

부산대 주변의 대학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화된 테마거리 벤치마킹, 부산대 거리공연개최, 문화기간 시설 사업비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부산대학로를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산대일원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부산대 주변 활동 문화예술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 매치 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 2011. 12. 22.(목) 개소하게 되었다.

예술공연지원센터는 다목적 홀, 세미나실, 사무실, 창고, 발코니 공간으로 이루어져 카페형 청년문화네트워크 거점으로 전시, 공연, 세미나, 워크숍, 축제 프로젝트 기획공간으로의 운영과, 부산대 일원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기획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토론의 장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의 중심축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 문화 공간 현황 〉

계	문화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문예·기념비	동상	김정한생가
20	1	3	2	1	2	9	1	1

〈 문화회관 현황 〉

명칭	소재지	좌석수	관리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구서동)	대공연장 868석	금정구청
		소공연장 330석	

〈 박물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장전동)	1,900㎡	유물 21,235점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02㎡	22종 283점	범어사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금정구 오륜대로 106-1(부곡동)	1,591.76㎡	유물 등 3,000여점	한국순교복지수녀회

〈 도 서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서 동 도 서 관	금정구 서부로 76번길5(서동)	610.2㎡	도서 64,694권	부산시교육청
금 정 도 서 관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26(청룡동)	8,466㎡	도서 67,002권	금 정 구 청

〈 미 술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구 죽전1길 29(금성동)	271.4㎡	조각,회화 등 271점	정 영 재

〈 영 화 상 영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씨너스오투시네마	금정구 중앙대로 1607(부곡동)	총 1,175석	김 삼 여
CGV 부산대	금정구 장전로 12번길55(장전동)	총 1,186석	이준우 외 1

〈 문 예 · 기 념 비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황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신정용열사 추모비	금정구 남산동 산1-1	'96.4.19.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 김 정 한 생 가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생가	금정구 팔송로 60-6(남산동)	2003. 5. 30	요산기념사업회

〈 동 상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박차정 의사 동상	금정구 구서1동 481번지	2001. 3. 1	금정구청장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재 총 75점(국가지정문화재 12점, 시지정문화재 63점)으로 그중에서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93호인 국청사 소장 강희5년명 금고가 국가지정 보물 제1733호 청동북으로 2011.12.23일자로 지정되었으며, 보관장소로는 정보박물관 46점, 범어사내 20점, 기타 9점으로 대부분의 문화재인 불교관련 서적 및 불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

2. 문화재 보호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우리나라 성곽 중 최대 규모로 송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 『금정산성』(길이 18,845m)과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등나무군생지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복원사업은 국방유적지로서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 『노포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되어 각별한 보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관리 실태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중에 있으며,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청(금정진 관아) 복원을 추진하고자 2003년부터 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표조사,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복원기본계획 수립, 홍보와 더불어 市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 용역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연제 도포사업 및 방화림 조성과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나. 보호 관리 대책

■ 화재예방

중요 목조 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8명) 24시간 교대근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문화재 보수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을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성곽보수가 체성 형태로만 보수 승인되었으나, 2009년 보수공사 시행시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 자료 고증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여장 설치로 제 모습을 갖춘 웅장함과 볼거리 제공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2011년에는 남문~2망루 66.6m와 동문~산성고개 368.4m 구간에 2,000백만원의 예산으로 체성 및 여장을 복원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성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중이다

나. 범어사내 문화재 주변 정화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코자 노후, 퇴락, 조잡한 요소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소채 증·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1년에는 대웅전 부분 보수와 화장실 보수 및 오수차집관로 설치, 2009년에는 쾌적한 문화유적지 환경조성을 위해 안내소 및 화장실 등을 정비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사업 및 전기 시설을 정비하였고, 2010년에는 대웅전 벽화모사 보수 보존처리와 강원건물 및 성보박물관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보제루 해체 복원사업은 추진중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범어사 정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1999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으며 2010년에 300백만원으로 내부 전시실 인테리어 및 수장고 보수를 마무리하였다. 연면적 505.44㎡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여 시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전수학교로 부산예술고등학교학생 20명, 동래지신밟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 전수학교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 48명, 동래학춤(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 전수학교로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학생 45명 대하여

전승보조금(14,690천원)을 지원하여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예술행사 개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성장(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 2004년 지정) 기능보유자 박한중 선생님은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한 조선전기의 대형 동종을 주성하는 사형주조공법과 상원사종의 정밀주조기법을 전통적인 사형주조방식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수한 소리와 아름다운 문양으로 극찬 받는 한국종의 신비로움을 제대로 계승하고 이와 함께 주성장의 전승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5.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락은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 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 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귀의주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90백만원으로 등나무 군락 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6. 금정산성 장대복원

금정산성의 유일한 장군 지휘소인 장대가 306년 전 건립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금정산성 축성일(2009. 5. 25.)에 맞추어 전통방식으로 재현한 장대낙성식이 개최되었다. 금정산 해발 475m에 위치한 장대는 1703년(숙종 29년) 금정산성(길이 18만km) 전체를 내다볼 수 있게 축조된 시설물(1동 27.3m³)로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소실된 이후 복원 전까지 터만 남아 있었다.

복원된 장대는 단층 누각 양식으로, 당시의 위용을 재현해 내기 위해 조선 시대 군기(軍旗)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이 그려진 14개의 깃발을 장대 주변에 설치했다.

낙성식은 2009. 5. 23.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추모목념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 장대 복원 경과보고와 낙성식 제향, 구청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낙성을 계기로 금정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전통의 도시 금정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7. 향토문화재 지정

천년 고찰 범어사와 금정산성 등 많은 보물과 사적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비문화재를 우리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점차 사라져 가는 향토 역사를 계승 보존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게 되었다.

2008년도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재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향토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조사된 11점을 상정하여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9점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금정산의 어원 '금샘'이 제1호로 선정됐다. 금샘은 특히 '세종 실록지리지'(1432년)에도 그 위치와 크기가 기록돼 있을 만큼 지명 유래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아직 그 어떤 문화재로도 등록된 바가 없다.

○ 향토문화재 목록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시 대
1	금 샘	청룡동	-
2	해 월 사 터	금성동	조선
3	계명봉 봉수대	청룡동	조선
4	조 정 언 비	두구동	조선
5	황산이방최연수애홀역줄비	선 동	조선
6	부사민영훈거사단	부곡동	조선
7	별장 김시도 영세 불망비	금성동	조선
8	수의상국이공만직영세불망비	선 동	조선
9	경거가선대부양공유하이혜불망비	청룡동	통일신라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향토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부산지역 문화재 보존에 있어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향토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홍보 및 안내판 설치, 주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향토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할 것이다.

8. 관광금정 구축

금정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금정의 길잡이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금정관광안내지도 『한 눈에 둘러보는 금정』 10,000부 및 『금정산성 리플렛』 12,000부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등에 배부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수천명이 이용하는 금정산성 4대문과 장대 등에 관광해설·표지안내판을 설치하고 노후 훼손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두구동 연꽃소류지에 편의시설인 전망테크, 관람 가교, 안내판을 보수·정비하고 등여자 및 임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였으며, 범어사·금정산성 일대에 해설사와 함께하는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하고 관광금정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금정의 문화유적지,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체험관광을 도와주기 위해 관광안내도우미를 범어사, 금정산성 동문 등 외래방문객의 방문이 잦은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금정구 대표적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엽서를 제작하고 주요 관광지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다국어 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고장 금정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특색에 맞게 발굴·관리하여 관광금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광금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총 현 황 〉

(2011. 12월 현재)

(단위 : 점)

계	국가지정문화재 (12)					시지정문화재 (63)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75	-	10	1	1		39	1	2	1	20

〈 국 가 지 정 문 화 재 〉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정 년월일	소재지
보물 (제250호)	범어사 삼층석탑 (梵魚寺 三層石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탑으로 당시의 불탑 및 조각수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1963.1.2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서울 광영대 소장본이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음. (1512년 중종 7)	2002.10.19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 (梵魚寺 大雄殿)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창한 목조 건물로 불당의 구조 및 양식이 잘 나타나 있음	1966.2.2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물 (제1461호)	범어사 조계문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한 일주문의 걸작품임	2006.2.7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물 (제894-2호)	주범망경 (注梵網經)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삼지계품』인데 줄여서 주범망경이라고 함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1224-2호)	불조삼경 (佛祖三經)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 그리고 중국 위양종의 초조인 영우의 위산경책 등 불경 3종이 합집된 것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1525호)	금장요집경 (金藏要集經)	이 책은 북제(北齊)의 승려 도기(道紀)가 각 경전에서 불교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편찬한 7권 가운데 2권(권1-2)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1526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이 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로서 개금시(改金時)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기문과 불상기인발원축을 통하여 석가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수기삼존불로 조성	2007.9.1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물 (제1595-2호)	목장지도 (牧場地圖)	숙종 때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목장의 실태에 대한 그림과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08.12.22	부산대학교 도서관내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金井山城)	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임란이후 현 규모로 조성된 국방유적임	1971.2.9	금성동일원
천연기념물 (제176호)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藤나무 群生地)	수령 100년생의 등나무 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면적 55,934㎡)	1966.1.13	청룡동 산2-1 범어사경내
보물 (제173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靑銅북)	1666년에 조성된 국청사 금고는 직경이 65.3cm에 이르는 제법 규모가 큰 작품으로 일부 산화된것 외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조선후기 금고의 선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2011.12.23	범어사 성보박물관

〈시 지 정 문 화 재〉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9호)	오층석탑 (五層石塔)	전형적인 오층석탑으로 1층 4면에 각 천왕의 특징이 뚜렷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음	1972.6.26	장전동산30 부산대학교 박물관앞
유 형 문화재 (제11호)	원호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호암내
유 형 문화재 (제12호)	원호암 서편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호암내
유 형 문화재 (제15호)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 幢竿支柱)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대형 기치를 걸어두는 지주로 장식이 전혀 없어 간결 소박한 멋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16호)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등으로 각 부분이 8각으로 되어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25호)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동래부사였던 이안눌이 범어사를 방문하고 지장전 옆 바위에 새긴 시를 목판으로 판각한 것 (1609년 광해군 원년)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6호)	『천수』 책판 (千手 冊版)	7판으로 된 천수경판으로 김해 감로사에서 개간한 것을 범어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 (1676년 숙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7호)	『어산집』 책판 (魚山集 冊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범어사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범응집의 일종으로 범패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8호)	『범어사기』, 『범어사 창건사적』, 『범어사고적』 판 (梵魚寺紀, 梵魚寺 創建史蹟, 梵魚寺古蹟板)	범어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새긴 3종의 목판으로 古木板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9호)	『선문촬요』 책판 (禪門撮要 冊版)	중국 역대 선사들의 저술과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0호)	『권왕문』 책판 (勸往文 冊版)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의 권왕가, 자책가, 서왕가를 언문으로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2호)	태전화상주심경 (太顛和尚柱心經)	당나라 고승인 태전화상이 반야심경에 주석을 한 책 (1411년 태종 11)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3호)	함허어록 (函虛語錄)	조선초 고승인 근화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 불교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임 (1440년 세종 2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 (指空直旨)	인도 승려인 지공선사의 진리의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한 책 (1475년 성종 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5호)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당나라 원각이 수행과정에 대해 적은 책으로 1381년 판본이 보물 641호로 지정됨 (1542년 중종 37)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6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으로 1378년 판본이 보물 705호로 지정됨 (1562년 명종 1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7호)	육조대사법보단경 (六朝大師法寶壇經)	禪宗의 6대조 慧能의 일대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경전처럼 존중 받는 책 (1569년 선조 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8호)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 한 책 (1570년 선조3)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석가탄생에서 1334년까지 고승대덕의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37호로 지정되어 있음 (1430년 세종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0호)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원나라 몽산화상 법어를 요약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768호로 지정되어 있음 (1579년 선조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1호)	법화경 (法華經)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문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1527~1711년 중종22~숙종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1호)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1869년 제작, 세로350cm 두루마리형으로 사천왕상 단독으로 그려진 불화는 현재 범어사 소장본이 제일 규모가 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2호)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기년명이 뚜렷하여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19세기 명문서식과 조선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3호)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자애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관음보살도로서 관음전 전각의 관음불상의 후불화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4호)	범어사 의상대사영정 (梵魚寺 義湘大師影幀)	고려시대 양식 계승, 1767년 작품으로 조선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63호)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梵魚寺 捌相·獨聖·羅漢殿)	한 채에 세 법당을 연이어 붙인 길쭉한 건물로서 1613년 묘전화상이 나한전을 창건, 1705년 명학스님이 팔상전을, 1905년 학암스님이 현재의 건물로 새롭게 중건함	2006.7.3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탕화이다 대형 화면에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정의 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8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1882년에 제작 상·하단으로 나누어 진 화면의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함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대웅전 내부 우측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은 조선후기 신중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0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이며, 작품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특히 대좌의 목서명에 의해 제작시기, 봉안처, 조각승 등이 확실히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1호)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 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那三尊佛坐像)	관음전 목조불상과 함께 조각승 진열의 작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3호)	범어사석조연화 대좌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下臺石)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 중 폭이 147cm에 이르는 규모가 큰 8각의 하대석이다.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2호)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미륵전에 단독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현재 범어사에 봉안된 목조 불상 중 규모가 가장 큼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6호)	불설장수멸죄호 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 護諸童子陀羅尼經)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책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삭가세존(釋迦世尊)이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에게 일체 중생의 멸죄장수(滅罪長壽)의 법을 설(說)한 경	2007.9.7	금정중학교 (남산동385번지)
유 형 문화재 (제80호)	금강반야바라밀 경(金剛般若波 羅密經)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졌던 대표적인 불교 경전 중의 하나로서 금강경(金剛經) 또는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불림.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81호)	보리달마사행론 (菩提達摩四行論)	달마의 선사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고, 행입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생활방식으로 사행(四行)이 있음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 월 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82호)	선문염송집 (禪門揔頌集)	이 책은 한국 선불교에 초석을 놓은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이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看話禪)의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염·송·사당거화(拈·頌·士堂舉話) 등 중요한 말들을 모아 총 30권으로 집성·편찬한 책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90호)	범어사 동종 (梵魚寺 銅鐘)	1728년에 제작된 범어사 동종은 우리나라 18세기 범종 주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라도 출신 김성원과 김선봉이 주성한 것으로 현존하는 18세기 범종으로는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 작품.	2008.9.1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96호)	범어사 원효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본 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 뿔뿔한 코, 머리의 비례가 짧음, 대의의 특징 중 목 좌우측 옷깃이 역삼각형을 이룬 점, 대의 끝자락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으로 처리된 점 등은 모두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혹은 보살상에서 흔히 엿보이는 특징과 유사	2008.12.16	원효암
무 형 문화재 (제12호)	주성장(鑄成匠) <기능보유자> 박한중(朴漢鍾)	조선전기 대형 동종의 사형주조방식과 정밀주조기법을 전통적인 사형주조방식으로 재현하여 우수한 소리와 아름다운 문양의 한국종의 신비로움을 계승	2004.10.4	<주소지> 부곡2동 235-5
기 념 물 (제15호)	금정산성부설비 (金井山城復設碑)	1808년 금정산성을 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사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비	1972.6.26	장전동 482
기 념 물 (제42호)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삼한시대 후기나 삼국시대 초기의 분묘 유적으로서 주거지 2동, 토광묘 45기, 옹관묘 6기에서 토기, 철기, 석기 등의 유물 출토	1996.5.25	노포동 142-1,2
민속자료 (제1호)	황실축원장엄수 (皇室祝願莊嚴繡)	한말 황실에서 범어사에 하사한 장엄수로서 당시 궁중 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99~190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호)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順治8年銘 靑銅銀入絲香盃)	조성연대, 조성지역, 봉헌지 등이 명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향완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651년 효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호)	도광명유제양이부 대발 (道光銘鍮製 兩耳附大鉢)	불교 공예품 중 의식법구로서뿐 아니라 사찰의 바루공양 의식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22~5년 순조 25~28)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5호)	동치원년명 범어사 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 金鼓)	고려시대 조성된 금고 양식을 계승한 조선후기의 대형 금고로서 조성연대,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려 주는 자료임(1862년 철종 13)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6호)	선방 축성패 (禪房 祝聖牌)	사찰 선방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로서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임.(한말)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0호)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주색지에 백색선묘 기법을 지닌 비왕실 계층 민중 불화의 백색선묘 불화의 흐름을 이은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1호)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표현기법이 동일, 제작 시기는 1860년대로 조선후기 불교미술연구에 귀중 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2호)	범어사 석가 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1887년 제작,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 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4호)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1891년 제작으로 범어사의 불교미술양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1호)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尊牌)	조선시대 원패의 일반적인 형태, 조선후기 불교의식 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2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조선후기 불단 봉안 목패의 기본형태인 능화형 주연과 연화대좌 및 운룡문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3호)	범어사 목조 옴마니반메흠소통 (梵魚寺木造 옴마니반메흠疏筒)	조선후기 소통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교의식과 불교공예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4호)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정방형에 가까운 몸체와 우진각형 뚜껍의 기본골 격은 목재로 가구하고 그 표면을 어피로 감싼 후 각 모서리마다 황동 장식으로 마감한 조선후기의 인통으로 대찰(大刹)에서 제작하여 전해지는 불교 공예품으로 드문 유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25호)	범어사 연 (梵魚寺 輦)	가마채인 네 개의 손잡이, 작은집 모양의 몸체, 돛형식의 옥개로 구성되어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그 시대의 연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6호)	범어사 바라 (梵魚寺바라(饒鉞))	놋쇠를 두들겨 제작한 방자유기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6호)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2006.7.3	금성동280일원
문화재 자 료 (제44호)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城僧將印)	승병의 통솔 및 관할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승병관계를 실증적으로 알려 주는 소한한 자료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5호)	범어사 자수수복문 병풍 (梵魚寺 繡壽福文 屏風)	조선 말기 불교에 뜻있는 궁인(宮人)이 제작하여 발복 청원의 뜻으로 범어사에 공양한 것으로 보이며 자수의 기법은 뛰어나지 않으나 각 글자의 색조를 달리하여 녹(綠), 청(靑), 자(紫), 남(藍), 황(黃), 홍(紅), 흑(黑), 백(白) 등 최소 8가지 이상의 자연 염색된 비단실로 수 놓여짐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8호)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內院庵 石造菩薩坐像)	눈, 코, 입이 작은 편이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고. 수인은 두 손 모두 땅을 향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두건과 수인을 통해 이 보살상은 지장보살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도상은 좀 더 연구 필요함.	2008.12.16	범어사 내원암
문화재 자 료 (제52호)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傷)	광서18년(1892년) 제작되었고, 제작자인 금어비구(金魚比丘)는 해규스님으로 밝혀짐 소형이지만 불상 조각양식상 조선후기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수작(秀作)의 불상 작품	2010.5.24	금정중학교

제3절 공보행정

1. 공보행정의 기본방향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보행정의 목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선진 복지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구는 세계화 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기법을 개발해 보다 앞서가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방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행정에서 새로운 구정 시책에 대한 비판과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구정모니터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알찬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대 구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 행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보행정의 방향을

- 첫째,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 둘째,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 셋째, 금정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및 SNS(트위터, 블로그) 운영 등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정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등)를 통한 홍보

구정의 각종 시책 등 보도자료를 구 출입 7개 언론 방송사를 비롯하여 총 30개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다수의 주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다.

언론매체는 전파를 활용하여 다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과 지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공중파 TV 매체의 지방뉴스시간 등을 활용하여 구정시책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방송 매체인 CJ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소식을 방송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각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사회면, 포토뉴스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구정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방송은 전달 이용 범위가 넓고 현장감이 있어 호소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신문은 독자층이 광범위 하고 공신력이 높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언론매체도 홍보여건의 변화 추세에 따라 개방화·생활화 되고 있으므로 언론인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브리핑 제도의 정례화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 2011 언론보도 현황

■ 언론보도 : 428건(홍보성보도 393건, 시정성보도 25건, 중립성 보도 10건)

■ 자료제공 : 중점사업, 당면현안업무, 우수시책, 수범(미담사례) 등

나. 월간 「금정소식」 발간

구민의 알권리 및 다양한 구정홍보와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일 「금정소식」을 제작 발행하여 구정 주요소식이나 생활정보, 지역미담 사례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정소식」은 지난 88년 1월 우리구 개청과 더불어 발간해 오다가 시대적 여건 변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2년 4월부터는 타블로이드 16면으로 증간하고 현재 매월 40,000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e-book 금정소식」을 발행하여 홈페이지에서 상시 구독 가능하고 인터넷 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인 메일로 송부해 주는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금정소식지 발행 : 12회 48만부(매월 4만부)

■ 2007년 2월부터 4만부 발행

■ 배부처 : 구청,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지하철역, 아파트, 대형마트, 영

화관 등

- 인터넷 신문(e-book 금정소식) 발행 : 12회
- 메일링서비스 신청 구독자 수 : 4,500여명

다. 실시간 미디어 SNS를 활용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환경 변화에 발맞춘 홍보 방안으로 2011년 3월 31일부터 트위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구정행사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구정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Feel 금정 블로그 기자들이 취재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동감 넘치는 사진으로 한층 더 친근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 구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금정구 트위터 운영 (<https://twitter.com/geumjeonggu>)
 - 팔로워수 : 1278명
- 금정구 블로그 운영 (<http://blog.naver.com/geumjeonggu>)
 - 방문횟수 : 19043회

2011 언론에서 본 금정구청

【선두구동 마을에 첫 목욕탕 40년 묵은 숙원 “때 벗었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목욕탕이 없던 선두구동에 40여년 만에 공중목욕탕이 생길 전망이다. 금정구는 오는 3월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신청 때 선두구동의 목욕탕 건립비용을 신청할 계획이며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목욕탕과 이·미용실, 세탁소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어 오는 2013년 준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10/ 부산일보 1.11/ 조선일보 1.12)

【부산 금정산 둘레길 조성 완료】

상마마을~구서동 잇는 9km, 천연 목재를 이용하는 등 자연친화공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 또 금정산의 토르(화석암반), 마삭줄 자생지 등 특색 있는 자연경관에 대한 생태 해설판도 마련하고, 고령자 및 임산부 운동 관련 정보 안내, 초등부 학습자료를 제공해 차별화된 명품 둘레길을 조성했다.

(연합뉴스 2.17/ 서울신문 2.18/ MBC-TV 2.18/ 국제신문 2.21)

【부산대 앞 ‘홍대처럼’ 청년문화 1번지로】

부산대 일원 문화특구거리 조성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 부산대 앞 일대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조형물과 공연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신문 3.25/ 연합뉴스 3.26/ 경향신문 3.28/ KBS-TV 3.28)

【금정구, “학생 1일 야간주차단속 체험”】

15일 오후 7시~10시 금정구의원 7~8명 주차단속 현장 체험 참여, 직접 둘러보면서 지역구의 주차문제를 짚어보았다.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일 주차단속 요원 되기’ 주차 단속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4.14/ KBS-TV 4.15/ CJ-TV 4.18)

【금정산 인간띠 잇기 쓰레기 청소 행사 개최】

금정구는 20일 오전부터 금정산 고당봉에서 금정산성 북문까지 주민과 직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산 쓰레기 청소를 위한 ‘자연사랑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KBS-TV 5.16/ 국제신문 5.21/ MBC-R 5.20/ MBC-TV 5.20)

【제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27일 개막】

금정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스포원파크와 금정산성, 부산대 일대에서 제 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를 개최한다. 시음, 명소탐방 등 이벤트가 풍성하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전통 누룩으로 빚은 민속주 1호로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합뉴스 5.15/ 부산일보 5.17/ 부산일보 5.18/ BBS-R 5.16/ 부산시보 5.18/ 조선일보 5.20/ MBC-TV 5.22/ 동아일보 5.25/ 국제신문 5.26/ 문화일보 5.27/ CJ-TV 5.26/ MBC-R 5.27/ MBC-TV 5.27/ KBS-TV 5.29)

【부산 ‘금정산성 고갯길 성곽’ 53년 만에 제모습】

금정구는 국가지정 사적 제215호인 금정산성의 동문에서 남문을 연결하는 산성고갯길 성곽 잇기 사업을 완료했다. 정비한 성곽의 총 길이는 117.1m로 복원된 성곽 위로는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너비 4m의 탐방로도 만들었고, 국내 산성에서는 볼 수 없는 총구가 있는 여장과 내부에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5.25/ 국제신문 5.26/ 조선일보 5.26/ 부산일보 5.26/ 한국일보 5.30/ KBS-TV 5.27 KBS-TV 6.1/ CJ-TV 6.1/ MBC-TV 6.3/ 부산시보 6.9)

【‘노포동역~회동수원지 상류’ 누리길 조성】

부산 금정구 두구동 노포동역에서 수영강을 따라 회동수원지 상류까지 7.5km의 강변 산책길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산책로(누리길)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7.13/ 국제신문 7.14/ 부산일보 7.14/ MBC-TV 7.14)

【"부산 청년문화 꽃피운다" 회춘 프로젝트 시동】

부산문화재단의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회춘 프로젝트'는 앞으로 4개월가량 금정구 부산대 앞 및 온천천 일대를 기점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문화를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결합시켜 부산 청년문화의 꽃을 피운다. 부산문화재단·금정구·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는 '부산회춘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일보 7.2/ 국제신문 7.5/ 부산일보 7.18)

【'금정산성 막걸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국내 민속주 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부산의 향토제품 가운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것은 기장미역 이후 두 번째로 지역명품주로 거듭난다.

(연합뉴스 7.19/ KBS-R 7.19/ MBC-TV 7.19/ 국제신문 7.20/ 서울신문 7.20/ 동아일보 7.20/ CJ-TV 7.20/ 부산일보 7.26)

【방화 소실 범어사 천왕문 12월까지 원형 복원키로】

범어사는 지난 주 관할 금정구청에 천왕문 복원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해 12월 방화로 소실된 천년고찰 범어사 천왕문이 원형대로 복원된다. 소실된 지 꼭 1년 만인 올 12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부산일보 8.16/ 연합뉴스 8.16/ MBC-TV 8.17/ KNN-TV 8.17/ CBS-R 8.17)

【산성마을에 200대 주차장 만든다】

금정구는 산성마을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녹지 내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금성동 공해마을 내 자연녹지 1만9천㎡에 조성될 다목적 부지는 소형차 기준 2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고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때에는 축제의 주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일보 10.6/ 연합뉴스 10.8/ MBC-TV 10.8)

【석해균 선장‘생명의 나무’금정구청 광장에 식수】

부산 금정구는 29일 오전 구청광장에서 석 선장의 용감한 희생정신과 귀향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연다.‘생명의 나무’식수는 아주대 병원이 있는 수원시에서 기증한 것이다.

(연합뉴스 11.23/ MBC-TV 11.29/ 국제신문 11.30/ 국민일보 11.30)

【부산 금정구, 부산 첫 CCTV 통합관제 구축】

부산 금정구는 22일 '금정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준공, 내년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방범·재난·교통용 CCTV를 함께 운용하는 통합관제 체제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했다.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구청 본관 8층에 조성된 통합관제센터에는 방범용, 재난감시용, 교통단속용 등 모두 400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연합뉴스 12.14/ 부산일보 12.16/ MBC-TV 12.18/ CJ-TV 12.21)

【금정구 예술공연지원센터 개소】

금정구는 지난 22일 '젊음의 거리'인 장전동 부산대 인근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인 전용 공간을 '금정구 예술공연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지난 22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가졌다. 금정구는 부산대 정문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원센터가 특히 청년 예술가들의 예술 창작 및 소통의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TV 12.22/ 부산일보 12.26)

